



미 증시, 엉갈린 GDP 결과 속 엔비디아 효과 등으로 강세

미국 증시 리뷰

23일(목) 미국 증시는 엔비디아(+14.0%)의 어닝 서프라이즈 효과, 4분기 GDP 하향 조정 등으로 상승 출발한 이후 장 중반 한 때 하락 전환하기도 했으나, 이후 성장주 중심의 매수세 유입에 힘입어 끝내 상승 마감(다우 +0.3%, S&P500 +0.7%, 나스닥 +0.5%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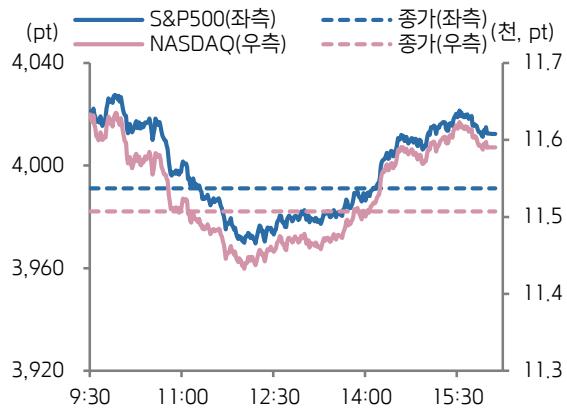
미국의 4 분기 GDP 잠정치는 2.7%(연율)로 지난 예비치(2.9%) 및 예상치(2.9%)를 모두 하회. PCE 물가지수(예비치 3.2% → 잠정치 3.7%), 기업투자(1.4% → 3.7%) 등은 상향 조정 됐으나, 개인소비지출(2.1% → 1.4%)이 하향 되면서 전반적인 성장을 하향 조정을 견인. 미 상무부 측은 개인소비지출이 가전제품, 자동차 등 구매 감소로 당초 계산했던 것보다 미국 경제 성장이 강하지 않았다고 평가.

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는 19.2 만건으로 전주(19.5 만건) 및 예상치(20.0 만건)을 모두 하회했으며, 연속실업수당청구건수도 165.4 만건으로 (전주 169.1 만건) 및 예상치(170.0 만건)을 모두 하회하는 등 미국 고용시장은 견조한 모습. 1 월 시카고 전미활동지수는 0.23으로 전월(-0.46%) 부진세에 반등하며 2022년 9월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를 기록.

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CEO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통제력을 잃었다면서, 이들의 목표치인 2%를 달성하기 위해서 금리가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. 동시에 미국 경제는 견조한 소비경기와 고용시장의 풍부한 일자리 등으로 인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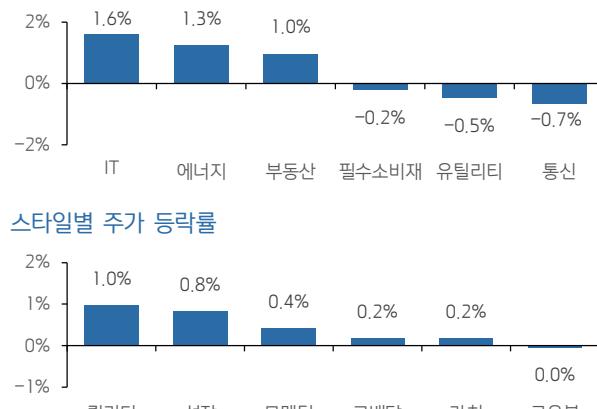
업종별로는 기술(+1.6%), 에너지(+1.3%), 부동산(+1.0%) 등이 강세, 커뮤니케이션(-0.7%), 유틸리티(-0.5%), 필수소비재(-0.2%) 등이 약세. 엔비디아(+14.0%)는 AI 용 반도체 칩 판매 호조 등으로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가운데, 골드만삭스에서 투자의견을 상향한 영향으로 폭등. 반면 모더나(-6.7%)는 코로나 백신 매출 감소 등으로 어닝 쇼크를 기록함에 따라 급락. 넷플릭스(-3.4%)도 100 여곳에 달하는 저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구독료를 최대 50% 인하키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수익성 악화 우려를 부각시키면서 약세.

S&P500 & NASDAQ 일중 차트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주요 지수					
주식시장			외환시장		
지수	가격	변화	지수	가격	변화
코스피	2,439.09	+0.89%	USD/KRW	1,296.92	-0.63%
코스피 200	319.44	+1.11%	달러 지수	104.60	+0.01%
코스닥	783.28	+0.61%	EUR/USD	1.06	-0.08%
코스닥 150	1,127.00	+0.45%	USD/CNH	6.92	+0.2%
S&P500	4,012.32	+0.53%	USD/JPY	134.71	-0.1%
NASDAQ	11,590.40	+0.72%	채권시장		
다우	33,153.91	+0.33%	국고채 3년	3.603	-2.9bp
VIX	21.14	-5.16%	국고채 10년	3.597	-3.2bp
러셀 2000	1,908.09	+0.71%	미국 국채 2년	4.700	+0.6bp
필라. 반도체	2,988.81	+3.33%	미국 국채 10년	3.885	-3.1bp
다우 운송	14,707.94	+1.06%	미국 국채 30년	3.885	-2.9bp
유럽, ETFs			원자재 시장		
Eurostoxx50	4,258.16	+0.36%	WTI	75.67	+2.33%
MSCI 전세계 지수	633.68	-0.45%	브렌트유	82.53	+2.39%
MSCI DM 지수	2,730.88	-0.35%	금	1829.9	-0.63%
MSCI EM 지수	982.06	-1.32%	은	21.33	-1.62%
MSCI 한국 ETF	60.52	+1.68%	구리	405.45	-3.25%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



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

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

MSCI 한국 지수 ETF 는 +1.68% 상승, MSCI 신흥국 ETF 는 +0.49% 상승. 유렉스 야간선물은 0.27% 하락. NDF 달러/원 환율 1개월물은 1296.76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, 달러/원 환율은 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.

1. 나스닥 등 성장주 중심의 미국 증시 강세가 국내 성장주에 미치는 영향
2. 엔비디아발 AI 관련주 기대감
3. 환율 레벨 부담에 따른 외국인 순매수 강도 악화 여부

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

전일 미 증시는 엔비디아의 실적 서프라이즈 영향 지속되며 IT 업종 중심으로 반등했으나, PCE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경제성장을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 점이 상승폭을 제한. 미국 4 분기 경제성장률은 QOQ 2.7%로 지난 예비치(2.9%), 대비 하향조정되었으며, 개인소비지출(2.1% → 1.4%)이 예상보다 저조했던 것에 기인.

반면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는 예비치 3.2%에서 3.7%로 상향조정되며 오늘 밤 10시 30분 1월 PCE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물가 우려는 재차 부각된 상황. 현재 FED Watch 상으로 3 월 FOMC 50bp 인상 가능성성이 27%대까지 상승, 1 월 근원 PCE 물가지수 컨센서스는 전년대비 4.3%(전월 4.4%), 전월대비 0.4%(전월 0.3%)로 형성. 해당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, 금리 인상 경로 불확실성 부각되며 금리와 달러에 재차 상승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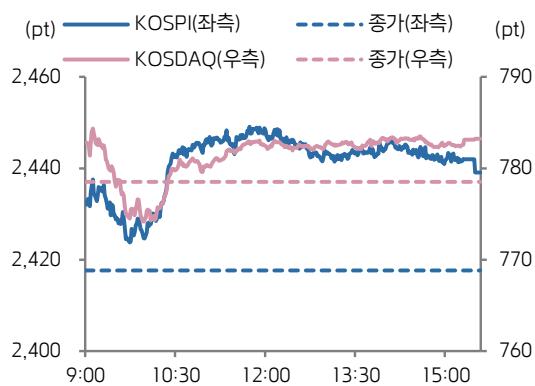
23 일(목) 국내증시는 전일 2 월 FOMC 의사록,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전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AI 용 반도체 관련 산업 기대감 부각되며 반도체, AI 관련주 중심으로 강세 (KOSPI +0.89%, KOSDAQ +0.61%).

전일 금통위에서는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3.5%로 동결했지만, 이후 기자회견에서 2% 목표치까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금리 인상 파급 효과를 지켜보겠다고 언급하는 등 향후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. 그럼에도 시장은 연속적인 금리 인상이 일단은 중단되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긍정적으로 해석, 금통위 이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음. 다만 한미 금리차가 1.25%p로 확대되었고 3 월 FOMC 에서 25bp 인상이 단행된다면 1.5%p 까지 확대되며 2000 년 이후 최대 역전폭을 기록하게 됨에 따라 환율 1,300 원대 고착화 및 외국인 순매수 둔화 우려는 존재.

업종별로는 전일 엔비디아가 견인한 반도체, 소프트웨어, AI 관련주들의 약진 뿐만 아니라 중국 경기 회복 및 재고 조정 국면 마무리 기대감 등으로 자동차, 화장품, 항공 등 경기에 민감한 업종 역시 강한 반등세를 보임. 2022 년 성장률을 크게 미달했던 중국은 올해 목표 경제성장률을 5% 이상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 월 4 일 양회까지는 중국 소비 관련주 모멘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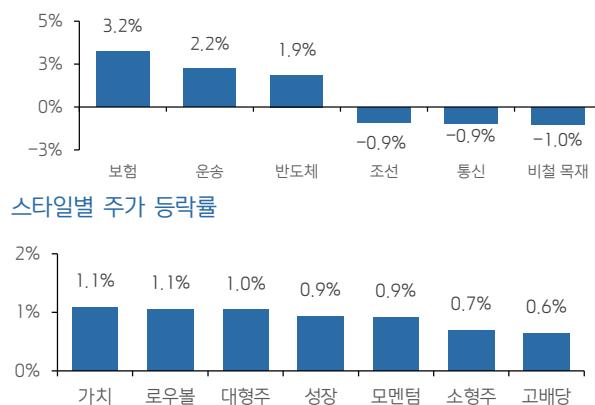
한편 이번주 초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로봇업계 수요를 반영한 '로봇 규제 혁신 로드맵 2.0'을 3 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. 향후 공개되는 정책 타임라인에 따라 관련주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, 이번 년도에 자금이 크게 집행되는 분야인 컨텐츠, 자율주행, UAM 등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.

KOSPI & KOSDAQ 일중 차트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자료: Bloomberg, Quantwise, Fnguide, 키움증권

Compliance Notice

-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-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사항

-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지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자리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 -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